

釜山市 小規模工業의 立地와 意思決定에 關한 研究*

李 熙 悅**

본 연구는 우리나라 都市內 小規模 工業의 立地決定要因을 규명하기 위한 行態的 研究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소규모 工業經營者들이 都市內部에 공장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고려하는 立地要因이 무엇이며, 또한 그 요인은 기업특성, 경영자특성, 입지장소의 용도지역상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내 소규모 공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공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업의 특성은 물론 경영자 및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내부의 비공업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입지함에 있어서 토지를 비롯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비경제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입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主要語: 立地要因, 地域選定要因, 場所選定要因, 移入要因, 移出要因, 殘存要因

1. 序 論

1) 研究目的

1980년대 이후 기업규모에 있어서 小企業 研究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地域開發에 있어서 소기업의 역할과 都市工業에 있어서 소기업 입지의 특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소기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Mason and Harrison, 198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규모에 있어서 전국 또는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하든 혹은 업종에 있어서 전체 업종 또는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든, 공통적으로 기업규모에 있어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小規模 工業의 立地特性에 관한 연구가 미약한 실정이다.¹⁾ 그 결과 우리나라의 工業立地 特性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소기업의 비중이 탁월한 都市工業의 都市內 立地特性을 파악하는 데 있어 小規模 工業의 立地特性에 대한 이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공업입지연구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실제 立地行態를 파악함으로써 공업의 분포와 그 변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견제로부터 성립된 行態的 立地理論은 실제 입지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적 요인을 고려한 이론이다. 그 결과 傳統的 立地理論이 의사결정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최적 입지를 추구함으로써, 실제 입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많은 非經濟的 意思決定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상당히 극복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0년대 후반부터 行態的 接近方法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이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국내 工業立地의 이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의사결정자인 기업주의 비경제적 의사결정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小企業만을 대상으로 공업입지 결정시 실제로 고려하는 立地要因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²⁾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都市內 小規模 工業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이며, 1990년도 문교부 지원 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 육성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의 立地特性을 이해하기 위한 行態的 研究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小規模工業 經營者들이 都市 內部地域에 공장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고려하는 입지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이는 企業特性, 經營者特性, 그리고 공장입지장소의 用途地域상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2) 研究方法 및 資料

본 연구는 立地選定要因과 移轉要因에 대하여 고찰하는 부문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立地選定要因은 공장의 입지를 부산으로 결정할 때 고려한 地域選定要因과 부산시내에서 현 장소를 선택할 때 고려한 場所選定要因으로 구분하였다.³⁾ 移轉要因은 과거 다른 지역 또는 장소로부터 현 장소로 이전해 올 때 고려한 移入要因과 현재 현 장소로부터 다른 지역 또는 장소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경우의 移出要因과 이전할 의사가 없으며 현 장소에 계속 머무르고자 할 경우의 殘存要因으로 구분하였다.

자료는 종업원수 49명 이하의 小企業 經營者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面接調査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며, 조사대상업체의 선정은 規模, 業種, 用途地域, 그리고 單位地域별로 균등히 배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比例層化標出法에 의거하였다.⁴⁾ 선정된 조사대상업체의 企業主들은 그들이 工場立地決定시 실제로 고려한(또는 고려하고 있는) 具體的 理由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3가지까지 일정한 응답항목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응답하였다.

응답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순위별로 유사한 내용의 항목들로 분류·집제한 후, 이를 交通, 原料, 市場, 勞動力, 土地, 政策, 情報,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 그리고 個人的 理由로 구성된 10개 立地要因으로 재분류하여 要因別 構成比를 산출하였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제 1순위를 중심으로 하되, 전체적 분석의 경우 제 2 및 제 3순위와 순위의 구분없이 종합한 결과에 의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인은 企業特性, 經營者特性 및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의 用途地域별로 분

석되었다. 기업특성은 規模, 業種, 設立時期를 지표로 하였으며, 규모는 업체당 종업원수의 빈도분포경향에 의해 16~49명을 小規模業體, 5~15명을 零細業體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의한 9개 업종⁵⁾, 설립시기는 5년 간격⁶⁾으로 구분하였다. 경영자특성은 경영자의 年齡, 企業經營經歷, 學歷을 지표로 선정하고, 연령은 4단계⁷⁾, 기업경영경력은 5단계⁸⁾, 그리고 학력은 3단계⁹⁾로 구분하였다. 또한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5개지역¹⁰⁾으로 구분하였다.

2. 立地選定要因

1) 全體的 分析

(1) 地域選定要因

현 공장을 釜山地域에 설립할 당시에 제 1순위로 고려한 立地要因중에서 가장 중요시한 요인은 個人的 理由(23.6%)이며, 다음으로 交通, 下部構造 및 서비스, 市場, 그리고 原料의 요인이었다. 반면에 勞動力, 土地, 居住地, 情報, 政策 등의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政策과 情報의 요인은 거의 무시되었다. 한편 제 2순위로 고려한 요인으로는 交通(19.2%)과 市場(18.0%)의 요인을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勞動力, 個人的 理由, 原料 등의 요인, 그리고 제 3순위로 고려한 요인으로 勞動力(19.8%)을 비롯하여 交通, 市場,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등의 요인이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제 1순위에서 중요시되지 않았던 요인들 중에서 勞動力은 제 2순위 및 제 3순위에서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여전히 중요시되지 않았다. 특히 政策要因은 거의 무시되었다(표 1).

이상의 순위별 분석결과, 지역선정과정에 있어서 입지요인에 대한 고려는 個人的 理由→交通→勞動力의 순서로 이루어 졌으며, 그리고 순서에 관계없이 市場, 下部構造 및 서비스, 原料要因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순위의 구분없이 고려한 요인을 종합한 결과, 交通(17.2%)이 가장 중요시되었으며, 다음으로 個人的 理由, 市場, 下部構造 및 서비스, 그리

표 1. 地域選定要因

要 因	第 1 順位		第 2 順位		第 3 順位		計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92	17.5	84	19.2	44	14.1	220	17.2
原料	50	9.5	46	10.5	29	9.3	125	9.8
市場	80	15.2	79	18.0	40	12.8	199	16.0
勞動力	29	5.5	59	13.5	62	19.8	150	11.8
土地	18	3.4	19	4.3	16	5.1	53	4.2
政策	2	0.4	—	—	1	0.3	3	0.2
情報	6	1.1	14	3.2	10	3.2	30	2.4
下部構造*	89	17.0	60	13.7	37	11.8	186	14.6
居住地	18	3.4	13	3.0	19	6.1	50	3.9
個人的 理由	124	23.6	47	10.7	34	10.9	205	16.1
其他	17	3.2	17	3.9	21	6.7	55	4.3
計	525	100.0	438	100.0	313	100.0	1,276	100.0

* 下部構造는 서비스를 포함(이후 表에서도 같음)

고 勞動力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한 요인은 個人的 理由이나, 종합적으로 交通을 가장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한 個人的 理由의 要因은 居住地 要因과 함께 행태적 접근에서 중요시되는 非經濟的 要因으로서, 이들 두 요인이 제 1 순위에서 27.0%, 제 2 순위에서 13.7%, 제 3 순위에서 17.0%, 그리고 종합에서 20.0%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적 이유의 요인에서 가장 주된 이유¹¹⁾는 “企業主의 故鄉 또는 오랜 居住地 域으로서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었으며, 특히 제 1 순위에서 응답자의 21.3%가 이에 관련된 이유를 들었다. 한편 거주지요인에서는 “居住地에서의 便宜性 및 快適性” 보다는 “企業主의 居住地와의 同一性”에 관련된 이유를 주로 들었다.

교통요인에 있어서는 “他地域과 交通의 便宜性”을 비롯하여 “原料運送便利”와 “港口로서의 利點”을 들고 있어, 교통의 結節地 및 積換地點으로서의 부산의 위치가 입지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부구조 및 서비스요인에서는 응답자들이 구체적 예시를 하지 못하고, 주로 “關聯 또는 同種業種의 集積”이나 “工團으로서의 利點”에 관한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업체간의 강한 連繫

現象¹²⁾과 관련하여 볼 때, 集積의 外部經濟 또는 都市化經濟의 이점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요인에서는 “製品販賣市場으로서의 規模”와 “製品販賣處에의 近接”을 이유로 들었으며, 실제 대부분의 업체가 제품을 他工場¹³⁾ 및 釜山市內¹⁴⁾에 출하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가 注文生産¹⁵⁾하고 있으며, 이들 주문생산업체의 注文生産比率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¹⁶⁾, 注文生産理由도 주로 부품생산을 비롯한 製品特性상의 이유를 주로 들었다.¹⁷⁾ 더구나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타 제조업체, 수출업체 및 도소매업체로부터 발주를 받는 下請業體들이다.¹⁸⁾ 따라서 부산에 공장을 설립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製品市場과의 接觸에 따른 利益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원료요인에서는 “原料供給地 또는 原料供給處에의 近接”을 이유로 들었다. 원료의 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산은 우리나라 제 1의 항구도시로서의 원료구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업체는 원료를 他工場¹⁹⁾ 및 釜山市內²⁰⁾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의 공장입지는 原料供給地 또는 原料供給處와의 接觸利益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동력요인으로는 “量的으로 勞動力의 豊富”

하다는 이유를 주로 들었으나, 한편 “熟練勞動力의 確保容易”에 대한 이유도 상당히 들었다. 이는 부산이 우리나라 제 2의 대도시로서 많은 勞動力이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공장이 발달하여 각종 技術人力의 교육 및 공급이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場所選定要因

부산지역내에서 현재의 場所에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 제 1순위로 고려한 立地要因들 중에서 탁월하게 중요시한 요인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 (24.1%)와 土地(23.7%)의 요인이며, 다음으로 交通이었다. 반면에, 原料, 市場, 勞動力, 政策, 情報, 居住地, 個人的 理由 등의 요인은 그 중요성이 미약하며, 특히 政策과 情報의 요인은 극히 미약하다. 이를 地域選定の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상당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사점으로는 交通要因이 크게 중요시되었으며, 반면에 勞動力, 政策, 情報 등의 요인이 중요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지역선정에서 중요시되지 못했던 土地要因이 장소선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은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비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居住地要因도 중요성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지역선

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個人的 理由를 비롯하여 原料, 市場 등의 요인이 장소선정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個人的 理由의 요인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非經濟的 要因의 비중이 지역선정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표 2).

제 2순위로 고려한 요인은 交通, 土地, 下部構造 및 서비스, 勞動力, 市場 등의 순서로 중시되었다. 이를 지역선정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비중이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交通要因이 가장 중요시되었음은 유사하다. 그러나 지역선정에서 중요시되었던 요인들 중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만 중요성이 높아지고, 나머지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중요성이 낮아지는 반면에, 土地要因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제 3순위로 고려한 요인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勞動力을 비롯하여 市場, 交通, 土地, 居住地 등의 순서로 중요시 되었다. 이를 지역선정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은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반면에 勞動力要因은 중요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지역선정에서 중요시 되지 않았던 土地要因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또한 非經濟的 要因중에서 個人的 理由는 중요성이 매우 낮아진 반면에 居住地의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표 2. 場所選定要因

要 因	第 1 順位		第 2 順位		第 3 順位		計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87	17.2	72	18.1	31	13.2	190	16.7
原料	17	3.4	27	6.8	23	9.8	67	5.9
市場	40	7.9	43	10.8	32	13.6	115	10.1
勞動力	28	5.6	48	12.1	35	14.9	111	9.7
土地	120	23.7	70	17.6	26	11.1	216	18.9
政策	5	1.0	1	0.3	3	1.3	9	0.8
情報	4	0.8	7	1.8	4	1.7	15	1.3
下部構造	122	24.1	66	16.6	37	15.7	225	19.7
居住地	30	5.9	27	6.8	24	10.2	81	7.1
個人的 理由	26	5.1	20	5.0	8	3.4	54	4.7
其他	28	5.5	17	4.3	12	5.1	57	5.0
計	507	100.0	398	100.0	235	100.0	1,140	100.0

순위의 구분없이 고려한 요인을 종합한 결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19.7%)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土地, 交通, 市場, 勞動力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제 1 순위와 비교하여 보면,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土地의 요인은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市場, 勞動力 그리고 居住地의 요인은 비중이 증대되었다. 또한 지역선정의 경우에 비해 특히 土地를 비롯한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 등의 요인은 비중이 높은 반면에, 특히 個人的 理由를 비롯하여 交通, 原料, 市場, 勞動力 등의 요인은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한 하부구조 및 서비스의 요인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하지 않고 “工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이와 함께 “關聯 또는 同種業種의 集積”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토지요인에서는 “工場敷地의 確保容易”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地價 및 地代의 低廉”, “工場建物の 賃貸容易”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교통요인에서는 “他場所와 交通의 便宜性”을 가장 주된 이유로, 다음으로 “原料 및 製品의 運送便宜性”을 들었다. 그리고 시장요인에서는 “製品販賣處에의 接近”, “製品販賣市場의 規模”, 노동력요인에서는 “勞動力의 豊富”, 원료요인에서는 “原料供給處에의

接近”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한 비경제적 요인인 거주지요인에서는 “生活環境의 便宜 및 快適性”보다는 “居住地와의 接近”을 보다 중요한 이유로 들었으며, 개인적 이유의 요인에서는 “企業主의 오랜 居住地域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2) 特性別 場所選定要因

(1) 企業特性別 分析

① 規模

企業規模별로 場所選定시에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요인을 순서대로 보면, 영세업체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24.1%)와 土地(23.2%)를 비롯하여 交通, 市場, 居住地, 소규모업체는 각각 24.1%의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土地를 비롯하여 交通, 勞動力, 市場 등이다. 규모간 요인을 비교해 보면, 영세업체는 소규모업체에 비해 交通要因과 居住地, 個人的 理由 등 非經濟的 要因을, 소규모업체는 영세업체에 비해 勞動力要因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② 業種

業種별로 場所選定시에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요인을 순서대로 보면, 음식료품공업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交通, 市場, 土地, 下部構造 및 서비스, 섬유·의복·가죽제

표 3. 業種別 場所選定要因

要 因	飲食料品		纖維·衣服·가죽·製		나무 및 나무製品		종이·印刷·出版		化學·고무·프라스틱		非金屬鑛物製品		第 1 次 屬		組立金屬·機械·裝		其 他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交通	3	14.3	6	9.5	6	15.4	6	15.0	14	14.3	1	7.7	4	19.0	44	22.2	3	21.4
原料	1	4.8	5	7.9	—	—	1	2.5	4	4.1	—	—	1	4.8	5	2.5	—	—
市場	3	14.3	2	3.2	1	2.6	8	20.0	7	7.1	1	7.7	4	19.0	12	6.1	2	14.3
勞動力	2	9.5	2	3.2	—	—	—	—	4	4.1	—	—	2	9.5	18	9.1	—	—
土地	3	14.3	23	36.5	16	41.0	10	25.0	25	25.5	3	23.1	5	23.8	32	16.2	3	21.4
政策	—	—	1	1.6	1	2.6	—	—	1	1.0	—	—	—	—	2	1.0	—	—
情報	1	4.8	—	—	—	—	—	—	2	2.0	—	—	1	4.8	—	—	—	—
下部構造	3	14.3	14	22.2	9	23.1	6	15.0	33	33.7	—	—	—	—	53	26.8	4	28.6
居住地	2	9.5	1	1.6	1	2.6	4	10.0	6	6.1	1	7.7	1	4.8	13	6.6	1	7.1
個人的 理由	1	4.8	3	4.8	3	7.7	4	10.0	1	1.0	4	30.8	3	14.3	7	3.5	1	7.1
其他	2	9.5	6	9.5	2	5.1	1	2.5	1	1.0	3	23.1	—	—	12	6.1	—	—
計	21	100.0	63	100.0	39	100.0	40	100.0	98	100.0	13	100.0	21	100.0	198	100.0	14	100.0

품공업은 土地(36.5%)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은 土地(41.0%)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個人的 理由, 종이·인쇄·출판공업은 土地(25.0%)를 비롯하여 市場, 交通,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 個人的 理由, 화학·고무·프라스틱 공업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33.7%)를 비롯하여 土地, 交通을 들고 있다.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공업은 個人的 理由(30.8%)와 土地, 제 1 차금속공업은 土地(23.8%)를 비롯하여 交通, 市場, 個人的 理由,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26.8%)와 交通, 그리고 기타 공업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28.6%)를 비롯하여 土地, 交通, 市場 등이다(표 3). 따라서 土地要因은 모든 업종이 공통적으로 중요시한 요인이며,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과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을 비롯하여 종이·인쇄·출판공업 등 輕工業部門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은 비금속광물제품공업과 제 1 차금속공업을 제외한 7개 업종에서 중요시 되었으며, 특히 화학·고무·프라스틱공업과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 등의 重化學工業部門의 입지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交通要因은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과 비금속광물제품공업을 제외

한 7개 업종, 市場要因은 음식료품공업, 종이·인쇄·출판공업, 제 1 차금속공업, 기타 공업 등 4개 업종, 居住地要因은 종이·인쇄·출판공업의 1개 업종, 個人的 理由의 要因은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 종이·인쇄·출판공업, 비금속광물, 제 1 차금속공업 등 4개 업종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③ 設立時期

현 장소에의 設立時期별로 場所選定시에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요인을 순서대로 보면, 1969년 이전에는 토지(27.3%)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市場, 勞動力, 1970~1974년에는 토지(23.3%)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1975~1979년에는 토지(25.6%)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등이다. 1980~1984년에는 交通(27.1%)을 비롯하여, 土地, 下部構造 및 서비스, 1985년 이후에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31.6%)를 비롯하여 土地, 交通 등이다(표 4). 그러므로 특히 1970년대까지는 土地要因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土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交通 또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經營者特性別 分析

① 年 齡

표 4. 設立時期別 場所選定要因

要 因	1969 以前		1970~1974		1975~1979		1980~1984		1985 以後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2	9.1	5	11.6	17	14.5	46	27.1	17	11.0
原料	—	—	1	2.3	1	0.9	9	5.3	6	3.9
市場	3	13.6	4	9.3	8	6.8	13	7.6	12	7.7
勞動力	3	13.6	4	9.3	5	4.3	5	2.9	11	7.1
土地	6	27.3	10	23.3	30	25.6	40	23.5	34	21.9
政策	—	—	2	4.7	2	1.7	—	—	1	0.6
情報	1	4.5	—	—	1	0.9	2	1.2	—	—
下部構造	4	18.2	9	20.9	27	23.1	33	19.4	49	31.6
居住地	1	4.5	2	4.7	10	8.5	6	3.5	11	7.1
個人的 理由	—	—	1	2.3	10	8.5	7	4.1	8	5.2
其他	2	9.1	5	11.6	6	5.1	9	5.3	6	3.9
計	22	100.0	43	100.0	117	100.0	170	100.0	155	100.0

표 5. 年齡別 場所選定要因

要 因	39歲 以下		40~49歲		50~59歲		60歲 以上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25	18.9	41	18.6	14	11.7	7	20.6
原料	6	4.5	8	3.6	3	2.5	—	—
市場	12	9.1	19	8.6	9	7.5	—	—
勞動力	10	7.6	9	4.1	7	5.8	2	5.9
土地	22	16.7	55	24.9	31	25.8	12	35.3
政策	2	1.5	2	0.9	1	0.8	—	—
情報	1	0.8	1	0.5	—	—	2	5.9
下部構造	39	29.5	50	22.6	28	23.3	5	14.7
居住地	6	4.5	15	6.8	6	5.0	3	8.8
個人的 理由	3	2.3	12	5.4	11	9.2	—	—
其他	6	4.5	9	4.1	10	8.3	3	8.8
計	132	100.0	221	100.0	120	100.0	34	100.0

경영자의 年齡별로 場所選定시에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요인을 순서대로 보면, 39세 이하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29.5%)를 비롯하여 交通, 土地, 40~49세는 土地(24.9%)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50~59세는 土地(25.8%)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60세 이상은 土地(35.3%)를 비롯하여 交通, 下部構造 및 서비스 등이다(표 5). 그리고 土地要因은 연령이 많을수록,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은 연령이 적을수록 중요시켰으며, 또한 비록 비

중은 크지 않으나 原料와 市場의 요인은 연령이 적을수록,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 非經濟的 要因은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시한 경향도 있다.

② 企業經營經歷

경영자의 企業經營經歷별로 場所選定시에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요인을 순서대로 보면, 5년 이하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32.1%)를 비롯하여 交通, 土地, 6~10년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20.0%), 土地, 交通 등이다. 그리고 11~15년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22.7%), 土地(21.8%)를 비

표 6. 企業經營經歷別 場所選定要因

要 因	5年 以下		6~10年		11~15年		16~20年		21年 以上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20	18.9	35	20.5	12	10.9	12	16.4	8	17.0
原料	6	5.7	5	2.9	2	1.8	2	2.7	1	2.1
市場	10	9.4	10	5.8	12	10.9	6	8.2	2	4.3
勞動力	6	5.7	9	5.3	5	4.5	4	5.5	4	8.5
土地	20	18.9	41	24.0	24	21.8	20	27.4	5	31.9
政策	1	0.9	—	—	2	1.8	2	2.7	—	—
情報	1	0.9	2	1.2	—	—	—	—	1	2.1
下部構造	34	32.1	42	24.6	25	22.7	14	19.2	7	14.9
居住地	4	3.8	9	5.3	11	10.0	3	4.1	3	6.4
個人的 理由	3	2.8	7	4.1	10	9.1	4	5.5	2	4.3
其他	1	0.9	11	6.4	7	6.4	6	8.2	4	8.5
計	106	100.0	171	100.0	110	100.0	73	100.0	47	100.0

표 7. 用途地域別 場所選定要因

要 因	專用工業地域		準工業地域		綠地地域		商業地域		住居地域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12	13.6	29	12.7	1	9.1	16	36.3	29	21.3
原料	3	3.4	10	4.4	—	—	1	2.3	3	2.2
市場	7	8.0	16	7.0	—	—	5	11.4	12	8.8
勞動力	2	2.3	10	4.4	—	—	2	4.5	14	10.3
土地	22	25.0	59	25.9	8	72.7	5	11.4	26	19.1
政策	2	2.3	1	0.4	—	—	1	2.3	1	0.7
情報	1	1.1	2	0.9	—	—	1	2.3	—	—
下部構造	33	37.5	69	30.3	—	—	6	13.6	14	10.3
居住地	—	—	10	4.4	1	9.1	2	4.5	17	12.5
個人的 理由	3	3.4	5	2.2	1	9.1	5	11.4	12	8.8
其他	3	3.4	17	7.5	—	—	—	—	8	5.9
計	88	100.0	228	100.0	11	100.0	44	100.0	136	100.0

못하여 交通, 市場, 居住地, 16~20년은 土地(27.4%)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21년 이상은 31.9%의 土地를 비롯하여 交通, 下部構造 및 서비스 등이다. 따라서 15년 이하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 16년 이상은 土地要因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土地要因은 경력이 많을수록,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은 경력이 적을수록 중요시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6).

③ 學 歷

경영자의 學歷별로 場所選定시에 제 1순위로 중요시한 요인을 순서대로 보면, 중졸 이하는 25.4%의 土地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市場, 居住地, 交通, 고졸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24.1%)를 비롯하여 토지, 交通, 대졸 이상은 각각 25.6%인 土地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交通 등이다. 그리고 下部構造 및 서비스요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 非經濟的인 要因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다 중요시한 경향이 있다.

(3) 用途地域別 分析

用途地域別로 場所選定시에 제 1순위에서 중요시한 요인을 순서대로 보면, 전용공업지역에서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37.5%)를 비롯하여 土地, 交通, 준공업지역에서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30.3%)를 비롯하여 土地, 交通 등이다. 그리

고 녹지지역에서는 土地(72.7%), 상업지역에서는 交通(36.3%)을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市場, 土地, 個人的 理由, 주거지역에서는 交通(21.3%)을 비롯하여 土地, 居住地, 勞動力, 下部構造 및 서비스 등이다(표 7). 따라서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工業地域에서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을, 녹지지역을 제외한 非工業地域에서는 交通要因을 가장 중요시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土地要因은 공업지역이 비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보다 중요시하였으며,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 非經濟的 要因이 비공업지역에서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移轉要因

1) 移入要因

(1) 全體的 分析

현 장소로 이전해 온 업체가 이전시에 제 1순위로 고려한 移入要因 중에서 특히 土地가 50.8%로 탁월하고, 다음으로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個人的 理由 등의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비중은 크지 않으나 政策要因이 상대적으로 나머지 요인들보다 중요시 되었다. 한편 제 2순위에서는 土地(35.4%)를 비롯한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居住地, 제 3순위에서는 각각 19.4%

표 8. 移入要因

要 因	第 1 順位		第 2 順位		第 3 順位		計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9	3.5	23	14.6	19	19.4	51	9.8
原料	7	2.7	2	1.2	2	2.0	11	2.1
市場	7	2.7	8	4.9	9	9.2	24	4.6
勞動力	6	2.3	7	4.3	11	11.2	24	4.6
土地	130	50.8	58	35.4	14	14.3	202	39.0
政策	13	5.1	7	4.3	2	2.0	22	4.2
情報	1	0.4	5	3.0	1	1.0	7	1.4
下部構造	34	13.3	27	16.5	19	19.4	80	15.4
居住地	10	3.9	15	9.1	10	10.2	35	6.8
個人的 理由	26	10.2	6	3.7	3	3.1	35	6.8
其他	13	5.1	6	3.7	8	8.2	27	5.2
計	256	100.0	164	100.0	98	100.0	518	100.0

인 交通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土地, 勞動力, 居住地, 市場 등의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표 8). 이를 순위의 구분없이 종합하여 보면 토지요인이 3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의 순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의 非經濟的 要因도 상당히 고려되었다.

移入要因으로 가장 중요시한 토지요인에서는 대부분이 공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工場敷地の確保容易”과 “工場建物の賃貸容易”에 관련된 이유를 들었으며, 또한 “地價 및 地代の水準”도 중요한 이유였다. 따라서 규모변동에 따른 “適正敷地 또는 建物の確保可能性”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부구조 및 서비스의 요인에서는 “工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廢水 및 廢棄物處理의 便宜性”이라는 환경적 이유를 주로 들었다. 개인적 이유의 요인에서는 “自家工場의 所有에 따른 부수적 諸般 利點”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교통요인에서는 “他場所와의 交通의 便宜性”, 원료와 시장의 요인에서는 “原料와 製品販賣處에의 接近”, 노동력요인에서는 “勞動力確保容易”, 정책요인에서는 “政府의 誘致 및 移轉政策”, 거주지요인에서는 “生活環境의 便宜 및 快適性”, “居住地와의 接近” 등의 이유를 들었다.

(2) 企業特性別 分析

① 規 模

企業規模별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入要因을 보면, 영세업체와 소규모업체가 각각 46.1%와 53.9%를 나타내고 있는 土地要因이 가장 탁월하고 다음으로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이며, 또한 소규모업체는 個人的 理由의 要因도 상당히 고려하였다. 그리고 규모간 비교해 보면, 영세업체는 原料, 市場, 居住地 등의 요인, 소규모업체는 土地를 비롯한 나머지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시하였다.

② 業 種

業種별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入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음식료품공업은 土地(50.0%)를 비롯하여 交通, 下部構造 및 서비스,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은 土地(50.0%)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29.4%),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은 50.0%의 土地를 비롯하여 原料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 종이·인쇄·출판공업은 土地(52.4%)와 市場(23.8%), 화학·고무·프라스틱공업은 각각 土地(52.4%)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등이다.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공업은 각각 50.0%의 土地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 제 1 차금속공업은 각각 33.3%의 土地와 個人的 理由, 政策,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은 土地

丑 9. 業種別 移入要因

要 因	飲食料品		纖維·衣 服製·가 자品		나무 및 나무製品		종이·印 刷·出版		化學·고 무·프 라티		非金屬 鑛品		第 1 次 屬		組立金屬 ·機械· 裝 備		其 他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交通	1	16.7	—	—	1	5.6	—	—	3	7.1	—	—	—	—	3	2.5	1	11.1
原料	—	—	1	2.9	2	11.1	1	4.8	1	2.3	—	—	—	—	2	1.7	—	—
市場	—	—	—	—	—	—	5	23.8	—	—	—	—	—	—	2	1.7	—	—
勞動力	—	—	—	—	—	—	—	—	1	2.3	—	—	—	—	5	4.2	—	—
土地	3	50.0	17	50.0	9	50.0	11	52.4	22	52.4	1	50.0	2	33.3	62	52.5	3	33.3
政策	—	—	2	5.9	1	5.6	1	4.8	4	9.5	—	—	1	16.7	3	2.5	1	11.1
情報	—	—	—	—	—	—	—	—	—	—	—	—	—	—	1	0.8	—	—
下部構造	1	16.7	10	29.4	2	11.1	1	4.8	5	11.9	1	50.0	1	16.7	12	10.2	1	11.1
居住地	—	—	1	2.9	1	5.6	1	4.8	1	2.3	—	—	—	—	5	4.2	1	11.1
個人的 理由	—	—	2	5.9	1	5.6	1	4.8	2	4.8	—	—	2	33.3	16	13.6	2	22.2
其他	1	16.7	1	2.9	1	5.6	—	—	3	7.1	—	—	—	—	7	6.0	—	—
計	6	100.0	34	100.0	18	100.0	21	100.0	42	100.0	2	100.0	6	100.0	118	100.0	9	100.0

丑 10. 設立時期別 移入要因

要 因	1969 以前		1970~1974		1975~1979		1980~1984		1985 以後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交通	—	—	—	—	1	1.9	3	3.9	5	4.6
原料	—	—	—	—	1	1.9	2	2.6	4	3.7
市場	—	—	1	8.3	3	5.6	3	3.9	—	—
勞動力	1	20.0	—	—	1	1.9	2	2.6	2	1.9
土地	2	40.0	4	33.3	25	46.4	41	53.2	58	53.0
政策	1	20.0	2	16.7	2	3.7	3	3.9	5	4.6
情報	—	—	—	—	—	—	1	2.3	—	—
下部構造	1	20.0	1	8.3	8	14.9	4	5.2	17	15.7
居住地	—	—	1	8.3	3	5.6	3	3.9	3	2.8
個人的 理由	—	—	2	16.7	10	18.5	2	2.6	10	9.3
其他	—	—	1	8.3	—	—	8	10.4	4	3.7
計	5	100.0	12	100.0	54	100.0	77	100.0	108	100.0

(52.5%)를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下部構造 및 서비스, 기타 공업은 土地(33.3%), 個人的 理由(22.2%) 등이다(표 9). 따라서 전체 업종이 공동적으로 土地要因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체로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을 중요시하였으나, 종이·인쇄·출판공업은 市場, 제 1 차금속공업과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은 個人的 要因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③ 設立時期

현 장소에의 設立時期별로 제 1 순위에서 중요시한 移入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1969년 이전에는 土地(40.0%)를 비롯하여 勞動力, 政策, 下部構造 및 서비스, 1970~1974년에는 土地(33.3%)를 비롯하여 政策, 個人的 理由, 1975~1979년에는 土地(46.3%)를 비롯하여 개인적 이유, 下部構造 및 서비스 등이다. 그리고 1980~1984년에는 土地(53.2%)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1985년 이후에는 土地(53.2%)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등이다(표 10).

표 11. 年齡別 移入要因

要 因	39歲 以下		40~49歲		50~59歲		60歲 以上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4	6.3	4	3.5	1	1.5	—	—
原料	3	4.7	3	2.7	1	1.5	—	—
市場	1	1.6	2	1.8	4	6.1	—	—
勞動力	2	3.1	4	3.5	—	—	—	—
土地	27	42.2	66	53.1	32	48.5	5	35.5
政策	6	9.4	2	1.8	4	6.1	1	7.7
情報	1	1.6	—	—	—	—	—	—
下部構造	7	10.9	10	8.8	14	21.2	3	23.1
居住地	3	4.7	3	2.7	3	4.5	1	7.7
個人的 理由	7	10.9	11	9.7	6	9.1	2	15.4
其他	3	4.7	8	7.1	1	1.5	1	7.7
計	64	100.0	113	100.0	66	100.0	13	100.0

따라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요인은 土地要因이며, 설립시기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979년 이전에는 個人的 理由, 1980년 이후에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이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정도는 다소 미약하지만 설립시기가 가까울수록 交通과 原料의 요인을 보다 중요시한 경향을 나타낸 반면에 市場과 居住地要因은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經營者特性格 分析

① 年齡

경영자의 年齡별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入 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39세 이하는 土地(42.2%)를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40~49세는 土地(53.1%)를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下部構造 및 서비스 등이다. 그리고 50~59세는 土地(48.5%)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21.2%), 60세 이상은 土地(35.5%)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등이다(표 11). 따라서 土地要因이 연령에 관계없

표 12. 企業經營經歷別 移入要因

要 因	5年 以下		6~10年		11~15年		16~20年		21年 以上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3	8.1	2	2.1	2	2.9	2	6.7	—	—
原料	3	8.1	2	2.1	1	1.4	1	3.3	—	—
市場	—	—	1	1.1	2	2.9	2	6.7	2	7.4
勞動力	1	2.7	3	3.2	2	2.9	—	—	—	—
土地	18	48.6	46	50.0	35	50.0	13	43.3	17	63.0
政策	1	2.7	3	3.2	4	5.7	4	13.3	1	3.7
情報	—	—	1	1.1	—	—	—	—	—	—
下部構造	5	13.5	14	15.2	7	10.0	6	20.0	2	7.4
居住地	2	5.4	4	4.3	3	4.3	—	—	—	—
個人的 理由	1	2.7	10	10.9	12	17.1	2	6.7	3	11.1
其他	3	8.1	6	6.5	2	2.9	—	—	2	7.4
計	37	100.0	92	100.0	70	100.0	30	100.0	27	100.0

표 13. 用途地域別 移入要因

要 因	專用工業地域		準工業地域		綠地地域		商業地域		居住地域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3	5.7	1	0.9	—	—	2	9.5	3	4.6
原料	2	3.8	2	1.9	1	11.1	1	4.8	1	1.5
市場	—	—	1	0.9	—	—	4	19.0	2	3.1
勞動力	1	1.9	2	1.9	—	—	—	—	2	3.1
土地	24	45.3	59	54.6	6	66.7	8	38.1	33	50.8
政策	5	9.4	3	2.8	1	11.1	1	4.8	3	4.6
情報	—	—	—	—	—	—	—	—	1	1.5
下部構造	13	24.5	13	12.0	—	—	2	9.5	6	9.2
住居地	2	3.8	2	1.9	1	11.1	1	4.8	4	6.2
個人的 理由	2	3.8	17	15.7	—	—	1	4.8	6	9.2
其他	1	1.9	8	7.4	—	—	1	4.8	4	6.2
計	53	100.0	108	100.0	9	100.0	21	100.0	65	100.0

이 탁월하며, 특히 40~49세가 그러하다. 다음으로 49세 이하는 個人的 理由를 비롯한 非經濟的 要因을, 50세 이상에서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 要因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정도가 미약하기는 하나 交通과 原料의 要因은 연령이 적을수록, 市場要因은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시한 경향이 있다.

② 企業經營經歷

경영자의 企業經營經歷별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入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5년 이하는 土地(48.6%)를 비롯한 下部構造 및 서비스, 6~10년은 土地(50.0%)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등이다. 그리고 11~15년은 土地(50.0%)를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下部構造 및 서비스, 16~20년은 土地(43.3%)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21년 이상은 土地(63.0%)를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등이다(표 12). 따라서 土地要因이 기업경영경력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이며, 특히 21년 이상에서는 탁월하다. 다음으로 10년 이하와 16~20년에서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 要因, 11~15년과 21년 이상에서는 個人的 理由의 要因을 중요시하였다.

③ 學歷

경영자의 學歷별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入

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중졸 이하는 土地(50.0%)를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下部構造 및 서비스, 고졸은 土地(48.7%)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대졸 이상은 土地(53.2%), 下部構造 및 서비스(15.6%) 등이다. 따라서 학력에 관계없이 土地要因이 가장 중요시된 요인이며, 다음으로 고졸 이하는 個人的 理由의 要因, 대졸 이상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 要因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下部構造 및 서비스 要因을 비롯하여 政策, 原料, 勞動力 등의 요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個人的 理由와 住居地 등 非經濟的 要因은 학력이 낮을수록 중요시한 경향이 있다.

(4) 用途地域別 分析

현 공장 입지장소의 用途地域별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入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전용공업 지역은 土地(45.3%)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준공업지역은 土地(54.6%)를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下部構造 및 서비스 등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토지(66.7%), 상업지역은 토지(38.1%)를 비롯하여 市場,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주거지역은 土地(50.8%)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등이다(표 13). 용도지역간을 비교해 보면, 土地要因을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했으나 녹지지역이

釜山市 小規模工業의 立地와 意思決定에 關한 研究

6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준공업지역, 주거 지역, 전용공업지역, 상업지역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은 非工業地域보다 工業地域에서 보다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政策은 전용공업지역, 個人的 理由는 준공업지역, 交通과 市場은 상업지역에서 다른 용도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시한 요인이다.

2) 移出 및 殘存要因

(1) 全體의 分析

현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 또는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제 1순위로 중요시한 移出要因 중에서 土地(44.7%)가 가장 탁월하며, 다음으로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交通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14). 나머지 요인들 중에서 居住地도 상당히 고려되고 있다. 이를 전술한 移入要因과 비교해 보면, 土地要因이 가장 탁월하고, 다음으로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을 중요시한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특히 政策을 비롯하여 交通, 居住地의 요인은 보다 중요시한 반면에, 個人的 理由와 土地要因의 중요성은 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 2순위에서는 土地(33.1%)를 비롯하

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勞動力, 居住地 등의 순으로 중요시 하였다. 移入要因과 비교해 보면, 주된 3대 요인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勞動力, 政策,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비중이 커진 반면에, 나머지 요인들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제 3순위에서는 土地(30.0%)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勞動力, 政策, 居住地 등의 순서로 중요시하였다. 移入要因과 비교해 보면, 土地와 情報의 요인은 그 비중이 커진 반면에, 下部構造 및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순위의 구분없이 종합하여 보면, 토지(38.1%)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交通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은 제 1순위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음으로는 비록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居住地和 勞動力으로 나타났다. 移入要因과 비교해 보면, 個人的 理由와 市場의 요인이 제외되는 반면에 政策을 크게 중요시 하였으며, 또한 土地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交通의 요인은 중요성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 이유를 보면, 가장 중요시한 토지요인에서는 “工場敷地の 確保難”을 주된 이유로 들었으며, 그외 “地價 및 地代의 水準”, “工場規模

표 14. 移出 및 殘存要因

要 因	移 出 要 因								殘 存 要 因							
	第 1 順位		第 2 順位		第 3 順位		計		第 1 順位		第 2 順位		第 3 順位		計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34	9.2	28	10.3	14	10.0	76	9.7	24	17.6	14	14.3	6	11.1	44	15.3
原料	7	1.9	2	0.7	2	1.4	11	1.4	8	5.9	7	7.1	3	5.6	18	6.3
市場	7	1.9	9	3.3	2	1.4	18	2.3	17	12.5	18	18.4	6	11.1	41	14.2
勞動力	8	2.2	26	9.6	14	10.0	48	6.1	7	5.1	12	12.2	5	9.3	24	8.3
土地	166	44.7	90	33.1	42	30.0	298	38.1	12	8.8	11	11.2	4	7.4	27	9.4
政策	48	12.9	19	7.0	10	7.1	77	9.8	1	0.7	3	3.1	—	—	4	1.4
情報	2	0.5	3	1.1	3	2.1	8	1.0	—	—	2	2.0	2	3.7	4	1.4
下部構造	68	18.3	59	21.7	27	19.3	154	19.7	22	16.2	9	9.2	8	14.8	89	13.5
居住地	21	5.7	24	8.8	12	8.6	57	7.3	6	4.4	4	4.1	8	14.8	18	6.3
個人的 理由	3	0.8	—	—	—	—	3	0.4	16	11.8	11	11.2	4	7.4	31	10.8
其他	7	1.9	12	4.4	14	10.0	33	4.2	23	17.0	7	7.1	8	14.8	38	13.2
計	371	100.0	272	100.0	140	100.0	783	100.0	136	100.0	98	100.0	54	100.0	288	100.0

擴大의 制約”, “工場建物の 確保難”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하부구조 및 서비스 요인에서는 “廢水 및 廢棄物處理의 어려움”이라는 環境的 理由와 이에 따른 “住民들의 移轉強要”라는 이유가 주를 이루었고, 다음으로 “工團과 같은 利點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책요인에서는 “用途地域의 違背 및 이와 관련된 “強制的 移轉政策”을 이유로 들었다. 교통요인에서는 “他場所와의 交通의 便宜性”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노동력요인에서는 “勞動力確保”, 거주지요인에서는 “生活環境의 便宜 및 快適性”과 “居住地와의 遠距離”, 원료와 시장의 요인에서는 “原料 또는 製品販賣處에의 接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다른 장소 또는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는 업체들이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殘存要因을 보면, 交通(17.6%)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16.2%)를 비롯하여 市場, 個人的 理由 등이다. 한편 제 2 순위에서는 市場(18.4%)을 비롯한 交通, 勞動力, 土地, 個人的 理由, 제 3 순위에서는 각각 14.8%의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居住地를 비롯하여 交通, 市場, 勞動力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순위의 구분없이 종합한 결과, 交通(15.3%)

을 비롯하여 市場,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土地, 勞動力 등의 순서로 중요시하였으며, 제 3 순위에서 가장 중요시한 居住地要因은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한편 제 1 순위에 비해 市場, 勞動力, 土地, 居住地 등의 요인의 비중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 이유를 보면, 가장 중요시한 교통요인에서는 거의 대부분 “交通의 便宜性”, 시장요인에서는 “製品販賣處에의 接近”, 하부구조 및 서비스요인에서는 “工團 또는 同種 및 關聯業種의 集積으로 인한 利點”을, 개인적 이유의 요인에서는 “自家工場 또는 土地所有로 인한 利點”과 “緣故地로서의 利點”, 거주지요인에서는 “生活環境의 便宜 및 快適性”과 “居住地와의 接近”, 그리고 시장과 원료요인에서는 “製品 또는 原料供給處에의 近接”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상의 이출 및 잔존요인의 분석에서, 移出要因으로는 土地를 비롯한 政策, 환경적 측면에서의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이, 반면에 殘存要因으로는 交通, 집적이익 측면에서의 하부구조 및 서비스, 市場, 個人的 理由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다.

(2) 企業特性別 分析

① 規模

표 15. 規模別 移出 및 殘存要因

要 因	移 出 要 因				殘 存 要 因			
	零 細		小 規 模		零 細		小 類 規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20	12.0	14	6.8	10	18.2	14	17.3
原料	1	0.6	6	2.9	4	7.3	4	5.0
市場	4	2.4	3	1.5	10	18.2	7	8.6
勞動力	2	1.2	6	2.9	3	5.5	4	5.0
土地	72	43.4	94	45.9	4	7.3	8	9.9
政策	26	15.7	22	10.7	1	1.8	—	—
情報	1	0.6	1	0.5	—	—	—	—
下部構造	29	17.5	39	19.0	8	14.5	14	17.3
居住地	9	5.4	12	5.9	1	1.8	5	6.2
個人的 理由	2	1.2	1	0.5	5	9.1	11	13.6
其他	—	—	7	3.4	9	16.4	14	17.3
計	166	100.0	205	100.0	55	100.0	81	100.0

표 16. 業種別 移出 및 殘存要因

要 因	出 移 要 因																	
	飲食料品		纖維·衣 服·가 죽·品		나무 및 나무 製品		종이·印 刷·出 版		化學·고 무·프 라티 크		非金屬 物製品		第 1 次 屬		組立金屬 ·機械· 裝 備		其 他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交通	3	25.0	2	6.3	4	11.8	2	7.1	4	5.4	1	10.0	1	7.1	16	10.2	1	10.0
原料	—	—	1	3.1	—	—	1	3.6	1	1.4	1	1.0	—	—	3	1.9	—	—
市場	—	—	—	—	—	—	1	3.6	4	5.4	—	—	—	—	2	1.3	—	—
勞動力	—	—	—	—	—	—	1	3.6	4	5.4	—	—	—	—	3	1.9	—	—
土地	4	33.3	12	37.5	12	35.3	12	42.9	33	44.6	3	30.0	8	57.1	77	49.0	4	40.0
政策	1	8.3	2	6.3	7	20.6	3	10.9	11	14.9	2	20.0	1	7.1	18	11.5	3	30.0
情報	—	—	2	6.3	—	—	—	—	—	—	—	—	—	—	—	—	—	—
下部構造	1	8.3	9	28.1	9	26.5	5	17.9	12	16.2	1	10.0	4	30.8	25	15.9	2	20.0
居住地	2	16.7	4	12.5	1	2.9	3	10.7	3	4.1	2	20.0	—	—	6	3.8	—	—
個人的 理由	—	—	—	—	1	2.9	—	—	1	1.4	—	—	—	—	1	0.6	—	—
其他	1	8.3	—	—	—	—	—	—	1	1.4	—	—	—	—	5	3.2	—	—
計	12	100.0	32	100.0	34	100.0	28	100.0	74	100.0	10	100.0	14	100.0	156	100.0	10	100.0

要 因	殘 存 要 因																	
	飲食料品		纖維·衣 服·가 죽·品		나무 및 나무 製品		종이·印 刷·出 版		化學·고 무·프 라티 크		非金屬 物製品		第 1 次 屬		組立金屬 ·機械· 裝 備		其 他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頻 度	%
交通	1	25.0	3	8.8	1	16.7	3	23.1	1	4.8	—	—	2	28.6	12	27.9	1	25.0
原料	—	—	2	5.9	—	—	1	7.7	3	14.3	—	—	1	14.3	1	2.3	—	—
市場	—	—	3	8.8	2	33.3	3	23.1	4	19.0	1	25.0	—	—	4	9.3	—	—
勞動力	1	25.0	3	8.8	—	—	—	—	2	9.5	—	—	—	—	1	2.3	—	—
土地	—	—	3	8.8	1	16.7	1	7.7	1	4.8	1	25.0	1	14.3	3	7.0	1	25.0
政策	—	—	—	—	—	—	—	—	—	—	—	—	—	—	1	2.3	—	—
情報	—	—	—	—	—	—	—	—	—	—	—	—	—	—	—	—	—	—
下部構造	—	—	7	20.6	1	16.7	1	7.7	2	9.5	—	—	2	28.6	8	18.6	1	25.0
居住地	1	25.0	2	5.9	—	—	1	7.7	—	—	—	—	—	—	2	4.7	—	—
個人的 理由	—	—	6	17.6	1	16.7	2	15.4	1	4.8	1	25.0	—	—	4	9.3	1	25.0
其他	1	25.0	5	14.7	—	—	1	7.7	7	33.3	1	25.0	1	14.3	7	16.3	—	—
計	4	100.0	34	100.0	6	100.0	13	100.0	21	100.0	4	100.0	7	100.0	43	100.0	4	100.0

規模별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出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영세업체는 土地(43.4%)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交通, 소규모 업체는 土地(45.9%)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등이다(표 15). 따라서 土地,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등의 요인은 공통적으로, 交通要因은 영세업체에서만 중요시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규모간 비교를 해 보면, 영세업체는

政策과 交通, 소규모업체는 土地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殘存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영세업체는 각각 18.2%인 交通과 市場을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소규모업체는 각각 17.3%인 交通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土地 등이다. 규모간 비교

해 보면, 특히 영세업체는 市場, 소규모업체는 個人的 理由와 土地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시하였다.

② 業種

業種別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出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음식료품공업은 土地(33.3%)를 비롯하여 交通, 居住地,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은 土地(37.5%)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은 土地(35.3%)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交通, 종이·인쇄·출판공업은 土地(42.9%)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居住地 등이다. 그리고 화학·고무·프라스틱공업은 土地(44.6%)를 비롯하여 하부구조 및 서비스, 政策, 비금속광물제품공업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30.0%),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은 土地(49.6%)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등이다. 따라서 土地要因은 전체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한 요인이나, 그 중에서 제 1 차금속공업이 57.1%로 가장 중요시했으며, 비금속광물제품공업은 30.0%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표 16).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은 음식료품공업과 비금속광물제품공업에서, 政策要因은 음식료품공업,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 제 1 차금

속공업에서 중요시되지 못했다. 또한 交通要因은 25.0%의 음식료품공업을 비롯하여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 등에서, 居住地要因은 음식료품공업,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 종이·인쇄·출판공업, 비금속광물제품 등에서 중요시하였다.

한편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殘存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20.6%)와 個人的 理由(17.6%),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은 市場(33.3%), 종이·인쇄·출판공업은 각각 交通과 市場(23.1%), 화학·고무·프라스틱공업은 市場(19.0%)과 原料(14.3%), 제 1 차금속공업은 각각 交通(28.6%)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은 27.9%의 交通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18.6%) 등이다.

③ 設立時期

현 장소에의 設立時期별로 제 1 순위로 중요시한 移出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1969년 이전에는 土地(31.3%)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 1970~1974년은 토지(34.6%)를 비롯하여 하부구조 및 서비스, 交通, 政策 등이다. 그리고 1975~1979년은 土地(38.4%)를 비롯하여 政策, 下部構造 및 서비스, 1980~1984년은

표 17. 年齡別 移出 및 殘存要因

要 因	移 出 要 因								殘 存 要 因							
	39歲以下		40~49歲		50~59歲		60歲以上		39歲以下		40~49歲		50~59歲		60歲以上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13	12.6	12	7.1	8	10.0	1	5.3	4	14.8	14	25.5	4	10.5	2	12.5
原料	4	3.9	2	1.2	1	1.3	—	—	4	14.8	3	5.5	—	—	1	6.3
市場	1	1.0	4	2.4	—	—	2	10.5	3	11.1	7	12.7	6	15.8	1	6.3
勞動力	2	1.9	4	2.4	2	2.5	—	—	2	7.4	4	7.3	1	2.6	—	—
土地	45	43.7	86	50.9	31	38.7	4	21.1	1	3.7	3	5.5	7	18.4	1	6.3
政策	9	8.7	21	12.4	12	15.0	6	31.6	1	3.7	—	—	—	—	—	—
情報	—	—	2	1.2	—	—	—	—	—	—	—	—	—	—	—	—
下部構造	25	24.3	26	15.4	14	17.5	3	15.8	6	22.2	10	18.2	3	7.9	3	18.8
居住地	1	1.0	8	4.7	9	11.3	3	15.8	1	3.7	4	7.3	1	2.6	—	—
個人的 理由	1	1.0	1	0.6	1	1.3	—	—	1	3.7	3	5.5	8	21.1	4	25.0
其他	2	1.9	3	1.8	2	2.5	—	—	4	14.8	7	12.7	8	21.1	4	25.0
計	103	100.0	169	100.0	80	100.0	19	100.0	27	100.0	55	100.0	38	100.0	16	100.0

토지(53.4%)를 비롯하여 하부구조 및 서비스, 政策, 1985년 이후는 土地(43.8%)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등이다. 설립시간 비교해 보면, 설립시기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시한 土地 要因은 다소 왜곡이 있긴 하나 설립시기가 가까울수록, 반면에 政策과 居住地의 要因은 설립시기가 오래될수록 중요시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제 1순위로 중요시한 殘存要因을 보면, 1969년 이전은 42.9%의 개인적 이유와 28.6%의 市場, 1970~1974년은 각각 25.0%의 交通과 個人的 理由를 비롯하여 下部構造와 서비스 등이다. 그리고 1975~1979년은 23.3%의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20.0%의 交通을 비롯하여 市場, 土地, 1980~1984년은 19.5%의 交通을 비롯하여 市場, 個人的 理由, 1985년 이후에는 21.4%의 下部構造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交通, 勞動力 등이다. 따라서 설립시기별로 主要因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한편으로 交通要因은 설립시기가 오래될수록 중요시한 경향이 있고, 다소의 왜곡이 있으나 個人的 理由의 요인도 그러하다.

(3) 經營者特性別 分析

① 年齡

경영자의 연령별로 제 1순위로 중요시한 移出

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39세 이하는 土地(43.7%)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40~49세는 土地(50.9%)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등이다. 그리고 50~59세는 土地(38.7%)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居住地, 交通, 60세 이상은 政策(31.6%)을 비롯하여 土地,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 등이다. 연령간 비교해 보면, 土地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要因은 연령이 적을수록, 政策과 居住地의 要因은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표 17).

한편 제 1순위로 중요시한 殘存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39세 이하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22.2%)를 비롯하여 交通, 原料, 市場, 40~49세는 交通(25.5%)을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市場 등이다. 그리고 50~59세는 個人的 理由(21.1%)를 비롯하여 土地, 市場, 交通, 60세 이상은 個人的 理由(25.0%)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등이다. 특히 個人的 理由의 要因은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시하여 50세 이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② 企業經營經歷

경영자의 企業經營經歷별로 제 1순위로 중요시한 移出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5년 이하와 6~

표 18. 學歷別 移出 및 殘存要因

要 因	移 出 要 因						殘 存 要 因					
	中卒 以下		高 卒		大卒 以上		中卒 以下		高 卒		大卒 以上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頻度	%
交通	11	23.4	14	9.0	9	5.4	3	12.5	12	18.8	9	18.8
原料	—	—	4	2.6	3	1.8	—	—	4	6.3	4	8.3
市場	3	6.4	1	0.6	3	1.8	4	14.7	7	10.9	6	12.5
勞動力	—	—	3	1.9	5	3.0	1	4.2	4	6.3	2	4.2
土地	10	21.3	75	48.1	81	48.2	1	4.2	6	9.4	5	10.4
政策	6	12.8	18	11.5	24	14.3	—	—	—	—	1	2.1
情報	—	—	1	0.6	1	0.6	—	—	—	—	1	2.1
下部構造	12	25.5	28	17.9	28	16.7	3	12.5	7	10.9	11	22.9
居住地	5	10.6	6	3.8	10	6.0	1	4.2	4	6.3	1	2.1
個人的 理由	—	—	1	0.6	2	1.2	6	25.0	9	14.1	1	2.1
其他	—	—	5	3.2	2	1.2	5	20.8	11	17.2	7	14.6
計	47	100.0	156	100.0	168	100.0	24	100.0	64	100.0	48	100.0

10년은 각각 48.8%와 53.8%의 土地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11~15년은 土地(38.3%)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등이다. 그리고 16~20년은 土地(33.3%)를 비롯하여 政策,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21년 이상은 土地(30.0%)를 비롯하여 政策,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 交通 등이다. 따라서 다소의 왜곡은 있으나 경력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시한 土地要因은 경력이 많을수록 그 중요성이 차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政策과 居住地의 要因은 경력이 많을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下部構造 및 서비스 要因은 경력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交通要因은 11~15년을 비롯하여 그 이상의 경력에서 중요시되었다.

한편 제 1순위로 중요시한 殘存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5년 이하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19.2%)를 비롯하여 市場, 交通, 原料, 勞動力, 6~10년은 交通(20.0%)을 비롯하여 土地, 勞動力,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등이다. 그리고 11~15년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21.9%)를 비롯하여 交通, 市場, 16~20년은 각각 18.2%인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個人的 理由를 비롯하여 交通, 市場, 21년 이상은 交通, 勞動力, 個人的 理由 등이다. 특히 個人的 理由의 要因은 경력이 많을수록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③ 學歷

경영자의 學歷별로 제 1순위로 중요시한 移出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중졸 이하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25.5%)를 비롯하여 交通, 土地, 政策, 居住地, 고졸은 土地(48.1%)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交通, 대졸 이상은 土地(48.2%)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등이다. 학력간 비교해 보면, 土地는 고졸 및 대졸 이상에서 탁월하게 중요시여겼으며, 交通,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는 중졸 이하에서, 政策은 대졸 이상에서 가장 중요시하였다. 특히 交通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要因은 학력이 낮을수록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제 1순위로 중요시한 殘存要因을 보면, 중졸 이하의 個人的 理由(25.0%)를 비롯하여

市場, 交通, 下部構造 및 서비스, 고졸은 交通(18.8%)을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市場, 下部構造 및 서비스, 대졸 이상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22.9%)를 비롯하여 交通, 市場, 土地 등이다. 학력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個人的 理由의 要因은 중졸 이하에서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중요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8). 또한 交通은 고졸 및 대졸 이상에서, 市場은 중졸 이하에서, 下部構造 및 서비스는 대졸 이상에서 가장 중요시하였다.

(4) 用途地域別 分析

현 공장 입지장소의 用途地域별로 제 1순위로 중요시한 移出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전용공업지역은 土地(45.2%)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준공업지역은 土地(51.5%)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등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土地(62.5%)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37.5%), 상업지역은 土地(58.6%)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주거지역은 土地(29.4%)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등이다. 용도지역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土地 要因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 그리고 政策要因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 非工業地域에서 중요한 이출요인이 되고 있으며, 下部構造 및 서비스 要因의 경우도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보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제 1순위로 중요시한 殘存要因을 순서대로 보면, 전용공업지역은 土地(26.9%)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준공업지역은 交通(19.4%)을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市場, 土地 등이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66.6%)와 原料(33.3%), 상업지역은 각각 31.3%의 交通, 市場을 비롯하여 個人的 理由, 주거지역은 個人的 理由(20.7%)를 비롯하여 居住地, 勞動力 등이다. 용도지역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交通과 市場의 요인은 상업지역, 下部構造 및 서비스요인은 전용공업지역, 그리고 勞動力, 居住地, 個人的 理由 등의 요인은 주거지역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4.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도시내 소규모공업의 입지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行態的 研究의 일환으로 부산시내 小規模 工業經營者들이 공장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立地要因을 중요시하며, 또한 이는 企業特性, 經營者特性 및 用途地域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내 소규모 공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面接調査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立地選定要因을 지역과 장소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地域選定要因: 가장 중요시한 요인은 個人的 理由의 要因이었으며, 居住地를 포함해서 非經濟的 要因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다음으로 交通, 下部構造 및 서비스, 市場 등의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순위의 구분없이 종합할 경우, 交通要因이 가장 중요시되었으며, 다음으로 個人的 理由, 市場, 下部構造 및 서비스, 勞動力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된 구체적 이유는 “企業主의 故郷 또는 오랜 居住地域이기 때문”을 비롯하여 “他地域과 交通의 便宜性”, “原料運送便利”, “關聯 또는 同種業種의 集積”, “製品販賣處에의 近接”, “製品販賣市場의 規模”, “勞動力의 確保容易” 등이었다.

② 場所選定要因: 가장 중요시한 요인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土地의 요인이며, 다음으로 交通要因을 중요시하였다. 주된 구체적 이유는 “他場所와 交通의 便宜性”, “工團으로서의 利點”, “關聯 및 同種業種의 集積”, “工場敷地の 確保容易 또는 工場建物 賃貸의 容易”, “地價 및 地代의 水準” 등이었다. 따라서 지역선정시 중요시되지 않았던 土地要因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또한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의 비중도 보다 증대되었다. 그리고 지역선정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비경제적 요인인 個人的 理由는 비중이 크게 낮았으며, 반면에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居住地의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둘째; 장소선정요인을 企業特性, 經營者特性,

그리고 用途地域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企業特性: 규모별로 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下部構造 및 서비스, 土地, 交通 등의 요인을 중요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영세업체는 交通要因과 居住地 및 個人的 理由 등 非經濟的 要因을, 소규모업체는 勞動力要因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업종별로는 전체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土地要因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 종이·인쇄·출판공업 등 經工業部門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은 특히 화학·고무·프라스틱공업과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 등 重化學工業部門에서 가장 중요시하였다. 설립시기별로 보면 1970년대까지는 土地要因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土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交通 또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이 증대되어, 1980~1984년에는 交通, 1985년 이후에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이 가장 중요시되었다.

② 經營者特性: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 40세 이상은 土地要因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土地는 연령이 많을수록, 下部構造 및 서비스는 연령이 적을수록 중요시한 경향이 있다. 또한 비록 비중은 적으나 原料와 市場은 연령이 적을수록,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 非經濟的 要因은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시한 경향이 있다.

기업경영경력별로 보면 15년 이하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 16년 이상은 土地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또한 경력이 많을수록 土地, 경력이 적을수록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 非經濟的 要因이 11~15년에서 특히 중요시되었으며, 경력이 많을수록 중요시한 경향도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는 土地, 고졸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 대졸 이상은 土地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下部構造 및 서비스, 학력이 낮을수록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의 非經濟적 要

인을 보다 중요시한 경향이 있다.

③ 用途地域: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 녹지지역에서는 土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는 交通의 要因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또한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 비경제적 요인이 非工業地域에서 중요시되었다.

세제; 移轉要因중 현 장소로의 移入要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移入要因으로서 가장 중요시한 요인은 土地이고, 다음으로 下部構造 및 서비스, 個人的 理由 등이었다. 그리고 交通, 居住地, 勞動力 등의 요인도 중요시하였다. 구체적 이유는 공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工場敷地の 確保容易” 및 “工場建物の 賃貸容易”, “地價 및 地代の 低廉”, “工團으로서의 利點”, “廢水 및 廢棄物處理”를 비롯한 환경적 이유, “自家工場の 所有로 인한 利點” 등이었다.

② 企業特性: 규모별로 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土地要因을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交通의 요인을 중요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영세업체는 市場과 居住地, 소규모업체는 個人的 理由와 勞動力의 요인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업종이 土地要因을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要因을 중요시했으며, 이와 함께 음식료품공업과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은 居住地,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은 原料, 交通, 市場, 종이·인쇄·출판공업은 市場, 交通, 居住地, 제 1 차금속공업,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과 기타 공업은 個人的 理由, 화학·고무·프라스틱공업은 政策과 交通의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설립시기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土地要因의 중요성이 설립시기가 가까울수록 증대되었다. 다음으로 1979년 이전에는 個人的 理由, 1980년 이후에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을 보다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非經濟的 要因으로서의 個人的 理由는 居住地와 함께 설립시기가 오래될수록 중요시하였다.

③ 經營者特性: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관계없이 土地要因이 가장 탁월한 移入要因이며, 다음으로 49세 이하에서는 個人的 理由, 50세 이상

에서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기업경영경력별로 보면 土地要因이 공통적으로 가장 탁월하며, 다음으로 10년 이하와 10~20년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 11~15년과 21년 이상은 個人的 理由의 요인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에 관계없이 土地要因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다음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下部構造 및 서비스, 학력이 낮을수록 個人的 理由를 비롯한 非經濟的 要因을 중요시하였다.

④ 用途地域: 공통적으로 土地要因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녹지지역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용공업지역은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준공업지역은 個人的 理由, 下部構造 및 서비스 상업지역은 市場, 交通, 주거지역은 個人的 理由,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네제; 移轉要因중 현 장소로부터의 移出要因과 현 장소에의 殘存要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현 장소로부터의 가장 중요한 移出要因은 土地이며, 다음으로 下部構造 및 서비스, 政策, 交通 등의 순서로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移入要因으로 중요시되었던 個人的 理由와 市場의 요인이 제외되고 政策要因을 크게 중요시하였으며, 또한 土地의 중요성이 낮아진 반면에 下部構造 및 서비스와 交通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었다. 주된 구체적 이유는 공장규모확대와 관련한 “工場敷地の 確保難”을 비롯하여 “地價 및 地代の 水準”과 “工場建物の 確保難”, “廢水 및 廢棄物處理” 등의 환경적 이유와 이에 관련된 “住民의 態度”, “用途地域違背” 및 이와 관련된 “強制的 移轉政策” 등이었다.

한편 현 장소에서의 殘存要因으로는 交通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를 비롯하여 市場, 個人的 理由 등의 요인이 중요시되었다. 구체적 이유로는 “交通의 便宜性”, “工團 또는 同種 및 關聯業種の 集積으로 인한 利點”, “製品販賣處에의 接近”, “自家工場 또는 土地所有로 인한 利點”, “緣地로서의 利點” 등이었다.

따라서 移出要因으로는 土地를 비롯한 政策,

환경적 측면에서의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이, 반면에 殘存要因으로는 交通, 집적이익 측면에서는 下部構造 및 서비스, 市場, 個人的 理由의 요인이 중요시되었다.

② 企業特性: 규모별로 보면 移出要因으로 土地가 공통적으로 가장 탁월한 요인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업체는 政策과 交通, 소규모업체는 土地, 下部構造 및 서비스, 居住地의 요인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한편 殘存要因으로 영세업체는 市場, 소규모업체는 個人的 理由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시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移出要因으로 土地가 전체 업종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된 요인이었으며, 이와 함께 下部構造 및 서비스는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과 제 1 차금속공업, 政策은 음식료품공업,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 제 1 차금속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交通은 음식료품공업, 나무 및 나무제품공업, 조립금속·기계·장비공업, 居住地는 음식료품공업, 섬유·의복·가죽제품공업, 종이·인쇄·출판공업, 비금속광물제품공업에서 각각 중요시하였다. 한편 殘存要因은 업종간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설립시기별로 보면 移出要因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한 요인인 土地는 설립시기가 가까울수록, 반면에 政策과 居住地의 요인은 설립시기가 오래될수록,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殘存要因으로 交通과 個人的 理由의 요인도 그러하였다.

③ 經營者特性: 연령별로 보면 移出要因으로 土地와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은 연령이 적을수록, 반면에 政策과 居住地의 요인은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시하였다. 한편 殘存要因으로는 個人的 理由가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시되어, 50대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경력별로 보면 移出要因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한 요인인 土地는 경력이 적을수록, 반면에 政策과 居住地의 요인은 경력이 많을수록 중요시하였으며, 殘存要因으로 個人的 理由도 경력이 많을수록 중요시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移出要因으로 土地는 고졸 이상에서, 居住地는 중졸 이하에서 가장 중요시했

으며, 특히 交通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은 학력이 낮을수록 중요시한 경향이 있다. 한편 殘存要因으로 個人的 理由는 중졸 이하에서, 交通은 고졸 이상에서 下部構造 및 서비스는 대졸 이상에서 가장 중요시한 요인이며, 특히 個人的 理由는 학력이 낮을수록 중요시하였다.

④ 用途地域: 공통적으로 土地가 가장 중요하 移出要因이나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중요도가 낮다. 政策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의 요인이 상업 및 주거지역 등 非工業地域에서 보다 중요시되었으며, 특히 政策要因이 그러하다. 그리고 居住地要因은 비공업지역보다 工業地域에서 더욱 중요시되었다. 한편 殘存要因으로 전용 및 준공업지역은 交通과 下部構造 및 서비스, 상업지역은 交通과 市場, 주거지역은 個人的 理由와 居住地 등 非經濟的 要因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부산시내 小規模 工業의 立地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企業의 특성은 물론 經營者 및 用途地域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시내 소규모 공업입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기업특성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고찰이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뜻한다. 특히 상업 및 주거지역 등 都市內部的 非工業地域에 소규모 공업이 입지함에 있어서 土地를 비롯하여 下部構造 및 서비스, 交通 등의 經濟的 要因과 함께 居住地와 個人的 理由 등의 非經濟的 要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도시내 소규모공업의 立地政策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投稿 1992년 12월 31일)

註

- 1) 企業規模에 따른 분석이 없었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小企業 또는 小規模工業만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했음을 뜻한다.
- 2) 林(1987)의 논문은 도시공업의 입지결정에 있어서 소기업일수록 非經濟的 意思決定을 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확인하고 都市工業立地의 이해를 위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3) 여기서 장소라함은 한 지역내의 下位單位地域을 상대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며, 단지

site의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역은 부산지역 전체, 장소는 부산지역내의 일부지역을 의미한다.

- 4) 설문조사기간은 1988년 6월 20일~동년 7월 20일이었으며, 조사업체수는 551개였다. 구체적 사항은 李熙悅(1989)를 참조할 것.
- 5) ① 飲食物品 및 담배 製造業, ② 섬유, 의복 및 가죽產業, ③ 나무 및 나무製品 製造業(家具포함), ④ 종이 및 종이製品 製造業, 인쇄 및 출판업, ⑤ 化合物, 石油, 石炭, 고무 및 플라스틱製品 製造業, ⑥ 비금속광물제품 製造業, ⑦ 제 1 차金屬產業, ⑧ 組立金屬製品, 기계 및 장비 製造業, ⑨ 기타 製造業.
- 6) 1969年 以前, 1970年~1974年, 1975年~1979年, 1980年~1984年, 1985年 以後.
- 7) 39歲 以下, 40歲~49歲, 50歲~59歲, 60歲 以上.
- 8) 5年 以下, 6年~10年, 11年~15年, 16年~20年, 21年 以上.
- 9) 中卒 以下, 高卒, 大卒 以上.
- 10) 專用工業地域, 準工業地域, 綠地地域, 商業地域, 住居地域.
- 11) 이에 관한 구체적 통계수치의 제시는 생략한다. 이후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 12) 註 13)~註 20)을 참조할 것.
- 13) 조사업체의 76.4%가 제품을 他工場으로 출하했으며, 總出荷量에 대한 비율은 40% 이하가 7.0%, 41~80%가 11.6%, 81% 이상이 57.8%이었다.
- 14) 조사업체의 81.4%가 제품을 釜山市內에 출하했으며, 總出荷量에 대한 비율은 40% 이하가 31.3%, 41~80%가 33.6%, 81% 이상이 16.4%였다.
- 15) 조사업체의 92.4%가 注文生産을 하였다.
- 16) 주문생산업체의 注文主産比率이 40% 이하가 12.8

%, 41~80% 이상이 71.0%였다.

- 17) 注文生産 理由로 47.1%가 製品特性을 비롯하여, 下請關係(16.0%), 在庫防止 및 計劃生産(8.7%), 販賣容易 및 販路確保(7.8%), 輸出商品(5.0%), 景氣變動(4.5%), 資本回轉(3.4%), 規模의 零細性(3.4%), 費用節減(2.2%), 단골關係(2.0%) 등을 들었다.
- 18) 발주업체의 24.5%가 中小企業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大企業 15.1%, 一般都小賣業體 10.6%, 大 및 中小企業 10.2%, 輸出業體 6.6% 등이었다.
- 19) 조사업체의 86.5%가 他工場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했으며, 總原料購入量에 대한 비율은 40% 이하가 14.3%, 41~80%가 13.3%, 81% 이상이 68.2%였다.
- 20) 조사업체의 78.9%가 釜山市內에서 원료를 구입했으며, 總原料購入量에 대한 비율은 40% 이하가 22.6%, 41~60%가 26.2%, 81% 이상이 30.1%였다.

文 獻

- 李熙悅, 1989, 釜山市 小規模工業의 立地 및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林永大, 1987, 都市工業의 空間配置와 立地變動,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Mason, C.M. and Harrison, R.T., 1985, The geography of small firm in the UK: towards a research agenda, *Progress in Human Geography*, 9, 1-36.

A Study on the Locational Factors of Small Industry in Pusan, Korea

Hee-Yul Lee*

Summa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ocational factors which the small firm entrepreneurs in Pusan City mainly consider in deciding location choices for their plants, and then to grasp the differences of the factors in terms of nature of firms, managerial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zoning areas.

In order to implemen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data are collected from selected small firm entrepreneurs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small firm industrialists for the regional choice consider crucial rationale as non-economic factor of personal reason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ervice, market and labor forces. But in selection of site, they are apt to have high regard on the such factors as infrastructure, service, land and transportation factor.

These factors to select the site demonstrate differentiation in terms of character of enterprises,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zoning areas. For example, land in the light of industrial sector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with longer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firms or more aged or experienced entrepreneurs, whereas infrastructure and service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sector are taken up as

an important one with shorter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firms or less aged or experienced or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of entrepreneurs. In addition, the non-economic factors such as the residential livability and personal reason are picked up as important factors with smaller the firm or more aged or experienced, lesser educational background of entrepreneurs.

Taking into consideration zoning area, infrastructure and service in the industrial area such as the exclusive and semi-industrial areas, land in green belt area, and transportation in the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s are singled ou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non-economic factors of the residential livability and personal reason in the non-industrial areas are also highly regarded.

Second, land is picked up as the most important one of pulling factors toward the present site while other factors such as infrastructure, service, personal reason are also regarded as the secondary reason for the move-in decision; the pulling factors for the present plant location show somewha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enterprises,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zoning areas.

Policy measures including land, infrastructure under the environmental aspects, service and transportations are, in turn, pointed out as the important ones for pushing factors. Meanwhile, as the important staying factor in the present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l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 under the aspect of the agglomeration benefit, market, personal reason are considered. The pushing and staying factors also shows somewhat distinctiv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enterprises,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zoning area. In the case of zoning area, land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move out, especially in the non-industrial areas including the commercial and residential areas policy measures, infrastructure and service are indicated as important factors to move out. In the meantime, as the important staying factor, industrialists in the exclusive and semi-industrial areas point ou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 Whereas the counterparts in the commercial area regard transportation and market as important factor, those in the residential area consider the non-economic factors such as personal reason and residential livabilit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identified that the locational chara-

cteristics of the intraurban small firm industries are not only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 of enterprises, but also with manager's personal character and the trait of zoning area.

Therefore, it seems that the thorough review or examination of enterprises, industrialists' characteristics and zoning areas will have meaningful significance in attempting explanation of small firm industries at the intraurban scale in the future. Especially, it appears that the economic factors such as land, infrastructure, service, transportation, and the non-economic factors such as residential livability and personal reason play together important parts to determine the locational choice of small firm industries along with non-industrial benefit. Thus, such status reveals the obvious implication for the intraurban industrial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locational factor, regional choice, site choice, pulling factor, pushing factor, staying factor